다산포럼

서지문

지구와 생명, 그리고 인간을 생각한다

근자에 KBS-1TV에서 주말 황금시간대에 다큐멘터리를 방영해 '아, KBS가 고상해지려나 보다' 하고 좋아했다. 토, 일요일 9시 뉴스 다음에 사극을 방영했었는데 역사왜곡도 심할 뿐 아니라 내용이 비열하고 살벌한 배신과 살육의 연속이어서 잠깐 보기에도 심난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최근에 방영된 '프로즌 플래닛(Frozen Planet : 얼어붙은 지구)'은 아름답고 신기한 극지의 장관을 배경으로 그 극단적인 환경에서 생존하면서 종족을 보존하는 여러 생물들의 필사적인 투쟁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극지의 봄은 매우 짧다. 모든 극지 동물들은 이 시기에 번식을 하고 새끼들의 생존훈련을 끝내야 종족을 보존할 수 있다. 남극의 아델리펭귄은 수컷들이 먼저 수만 마리 떼 지어 바닷가에 나타나서 돌멩이를 물어다가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나 북극에선 태풍이 불면 수만 마리가 모두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다. 기후가 자비를 베풀면 암컷 펭귄 수만 마리가 떼 지어 와서 정다운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한다. 낳은 알은 수컷이 품고, 암컷은 새끼들의 먹이를 잡으러 간다.

겨울 잠 중에 새끼를 낳은 북극곰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먹이를 먹어야하는데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 먹이인 얼음 밑의 물범이 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도망치기 때문에 물범을 잡을 수가 없다.

새끼를 노리는 동물들이 있고 배가 고픈 숫곰도 새끼 곰을 잡아먹기 때문에 새끼들을 놔두고 다닐 수도 없다. 얼음이 녹으면 얼음 밑에 사는 먹이를 잡기는 불가능하다. 넉 달을 굶고도 어미 곰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인다. 그러다 젖이 마르면 새끼들은 굶어 죽게 된다.

남극의 울리베어 애벌레는 봄에 살아나서 잎을 열심히 갉아 먹다가 봄이 가면 바위 밑에서 내장과 피가 얼어 냉동상태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기를 열네 해 반복한다. 열네 해에 걸쳐 축적한 영양분으로 열네 살 운명의 봄에 고치를 틀고 나방으로 자라서 고치를 뚫고 나와 며칠 안에 짝짓기를 하고 날아오른다.

이처럼 혹독한 극지이지만 봄에는 녹는 바다 얼음이 바다에 플랑크톤과 크릴새우를 거의 무한대로 번식하게 해 바다와 해변을 생명들로 넘쳐나게 만든다. 수천만 마리의 펭귄, 1,800만 마리의 쇠부리슴새, 5억 마리의 대구떼…. 모든 북극 동물의 무게를 합하면 지구상의 어느 단위 면적당 합계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한다.

북극에 여름이 오면 남극에서부터 번식을 위해 북극까지 1만8000km를 날아온 제비갈매기가 나타난다. 킹펭귄도 여름동안 얼른 새끼를 키워서 가을이 오기 전에 떠나야 하는데, 먹이를 사냥해 온 펭귄 어미는 40만 마리의 무리 속에서 자기 새끼를 울음소리로 식별해 내야 한다.

남극대륙의 여름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범이 남조지아(South Georgia)섬에 모여든다. 보통 5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수컷들이 물어뜯으며 영역싸움을 하면 새끼들은 짓눌려 죽거나 폭력과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어미를 잃기도 한다.

범고래가 무리를 지어 한 마리 밍크고래를 추격하면 밍크고래는 30km를 헤엄쳐 달아나도 범고래 떼를 따돌리지 못하고 마침내 범고래 떼의 먹이가 되고, 피 냄새가 나면 새들도 달려들어 쪼아 먹는다.

개체 수 50만 마리의 남극 아델리펭귄은 새끼 한마리가 자라기까지 30kg의 먹이를 먹어야 해서 부모는 쉴 새 없이 사냥을 한다. 그러나 부모가 사냥 나간 사이에 도둑갈매기가 새끼를 채어가서 새끼의 절반만이 성체로 자란다.

극지에 겨울이 오면 4개월간 해가 뜨지 않는다. 보통 식물은 다 죽고 침엽수들만이, 많게는 3t씩의 눈을 이고 겨울을 난다. 큰부리오리 10만 마리 등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북극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날아간다. 번식기가 끝나면 북극은 황량해 진다. 북극에서 겨울을 나는 동물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북극곰 암컷은 눈을 파고 누울자리를 마련해서 동면에 들어간다. 그것은 새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잠이다.

참으로 많은 생물이 이토록 가혹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몸으로 죽음과 대결하면서 살고 있다. 동물만큼 고되고 위태롭고 척박한 삶을 사는데, 다른 생물들 덕에 편하게, 문명사회에서 풍요를 누리며 사는 인간들이 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것일까? 치사하고 악랄하고 탐욕스런 인간의 지구에 존재할 자격을 새삼 묻고 싶어진다.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반환점 맞은 민선 5기 '소통' 강화해야

다음달 1일이면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일선 시·군·구 단체장의 임기가 3년째에 접어든다. 4년 임기의 민선 5기가 이달 말로 반환점을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기대 밖이다.

공무원들의 부정·비리와 근무태만이 도를 넘어서는가 하면 일부 단체장의 제왕적 군림으로 인사와 사업 등에서 갖가지 파열음을 낳고 그로 인해 불신과 비판을 자초해 왔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각 단체장들은 너도나도 '청렴'과 '소통'을 앞세웠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달라진 건 없다. 공무원들의 비리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광주시는 청렴에 관한 한 낙제점이다.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과 관련해 고위 공무원, 대학 교수, 업체 관계자 등 사법처리된 인사만도 31명에 이르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광주용연정수장 수돗물 사고와 한미합작법인의 부실 추진 의혹 등도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와 태만이 빚은 결과다.

전남도 역시 청렴도와 행정평가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성적표는 초라할 수밖에 없다. 시·도 교육청도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과 편향된 인사로 인해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게다가 지난 번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장휘국 시교육감과 함께 선거비용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공무원의 비리가 만연하고 태만해진 데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책임이 크다. 일방적인 지시나 인사 전횡은 조직의 부패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체장이 공무원과 주민,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행정을 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의회도 사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해선 안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 파고든 사행성 게임장 근절책 없나

일반게임장의 불법 사행행위가 극성을 부리며 도심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게임물 등급 심의를 통과한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하는데다 도박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어 법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은 올 들어 성인오락실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97개소를 적발했다. 그러나 일반게임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환전 등 사행 행위를 적발하기 전까지는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 업주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나 차량에서 은밀하게 환전을 해주거나 쪽지를 통해 환전해주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어 좀체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게임장이 각 구(區)마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택가에서 10여곳씩 성업 중이라는 첩보만 입수했을 뿐 좀처럼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장년층들이 200~300명씩 옮겨다니며 은밀하게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까지 하고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것은 성인 PC방 등에 비해 법적인 단속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임기에 도박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지라도 환전 등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적발할 수 없는 데다 처벌의 수위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한계도 많다.

도박은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해치는 사회악이다. 불법 게임장을 뿌리뽑으려면 업주나 가담한 손님만이 아닌, 사행성 게임 제조·판매업자까지 함께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법당국은 일반게임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사행성에 대한 명확한 법규를 정비해 주택가로 파고드는 도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기 고

진정한 유산(遺産)의 가치

최범채

17년 전 미국 유학생활 중에 우리 부부가 겪은 일이다. 같은 실험실 동료인 에이미(Amy)는 사시사철 진바지를 교복처럼 입고다녔다. 그러다 보니 그 옷은 헤지다 못해 여기저기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요즘이야 구멍 난 진바지를 멋으로 입고다닌다지만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런 바지를 '멋으로' 입고다니지는 않았다. 얼마나 어려우면 남학생도 아닌 여학생이 진바지 한 벌로 사계절을 버틸까?

우리 부부는 에이미를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와줄 생각을 했었다. 우리도 어려웠지만 1년 내내 그 단벌 진바지 아가씨에 비하면 나을 것 같아서였다. 나는 내심 에이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동료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아이의 영어 작문지도를 부탁한 적이 있다. 그 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이미는 평화봉사단(Peace Corps) 일원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게 되었다고 즐거운 표정으로 나에게 저녁식사를 초대했다. '소말리아라고'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미국에서도 하버드 의대생이라면 소위 1% 이내에서도 최상층 학생이다. 그런데 아프리카, 그것도 분쟁지역인 소말리아에 가겠단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우리 부부는 기꺼이 에이미의 초대에 응했다. 그런데 초대받은 집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손님을 맞는 에이미의 우아한 복색, 딸에게 초대받아 온 에이미 부모님의 세련된 매너.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단벌바지 여학생의 부친이 메사추세츠 주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았다.

에이미의 작은 아파트(부모로부터 독립)에서 나오는 길에 우리 부부는 에이미가 틀림없이 부모님 눈 밖에 나서 그 고생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얼마나 심했기에, 저런 갑부가 귀하고 머리 좋은 딸을 저렇게 방치해둘까. 여러 가지 망상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생각은 순 한국식 망상이었다. 에이미는 부모의 재산이나 명예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2년간의 소말리아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경험과 학비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부모 또한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쥬 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비로소 에이미가 입고다닌 청바지의 진실을 알게 된 나는 놀람과 찬탄,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뒤섞이는 경험을 했었다.

우리나라의 일부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어떻게든 자식이 부모보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스란히 자신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에 쌓여 있다. 또한 부족함이 없는 처지인데도 처가 재산까지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유산을 대물림했더라도 살아생전에 유산이 거덜나는 뼈아픈 광경을 보게 되는 부모님들도 많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부모를 학대하고 형제 우애도 버리고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처음부터 자신의 땀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있는 빵의 개수를 계산하지 않고 없어진 빵의 개수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 땀이 배어들지 않은 많은 빵을 가진 자들은 늘 노심초사 없어지는 빵의 개수에 예민하고, 다시 채우기 위해 무리수를 선택한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골방에서 외롭게 사는 노인네들을 접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식 자랑에 열을 내는 모습은 슬픈 아이러니다.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못난 자식일지언정 내리 사랑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많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이여!

당신의 부모 재산을 로또 복권으로만 보지 말고, 부모의 피와 땀의 결정체를 먼저 체험하라. Why(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엘병원장〉

기 고

'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기다리며

서민종

나는 10여 전부터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집에는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정원이라 이름 붙이기에 어설픈지 모를 나만의 정원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정성껏 가꾸고 있다.

멀리 남쪽에서 봄기운이 전해져 올 때쯤이면 우리 집 정원에는 가장 먼저 노오란 수선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트린다. 신비로운 광경을 혼자 보기 아까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너무 이뻐요"라는 댓글이 나를 기쁘게 한다. 길지 않은 수선화와의 만남이 끝나면 텃밭에 살구꽃과 매화꽃이 함박웃음을 짓기 시작하고 정원에서는 가녀린 미니 팬지와 철쭉이 앞 다퉈 꽃망울을 터뜨린다. 언제 피었나 싶을 정도로 짧기만 한 하얀 라일락 꽃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워질 때면 짝짓기에 나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에 새벽 정원은 분주하기만 하다. 이에 질세라 이른 모내기가 끝난 논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새벽을 가른다.

어느새 반 뼘쯤 자란 파란 잔디밭에 잔디 깎는 기계소리가 요란해 지면 하얀 백합꽃 향기가 정원을 가득 채운 채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해주려 한다. 불볕더위와 긴 장마 속에서도 나만의 정원은 푸르름을 잃지 않고 온갖 잡초들과 함께 신나는 여름을 노래한다.

백일동안 꽃이 피고 진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백일홍에 관한 슬픈 전설이 눈물 되어 뚝뚝 떨어져 내리면 노랗고 하얀색으로 피어난 국화꽃 향기가 정원에 가득하다. 늦가을 바람에 정원 한 귀퉁이에서 있는 팽나무 잎이 연못을 가득 메우게 되면 나뭇잎을 이불삼아 긴 겨울을 나게 될 비단 잉어 생각에 안도의 미소가 저절로 피어난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밤새 내린 하얀 눈으로 덮인 정원 사진을 또다시 SNS에 올리면 "환상적이네요"라는 탄성이 쏟아진다.

이처럼 나만의 정원은 365일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나와 내 이웃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요즘 여수 엑스포와 더불어 순천만에 대한 관광 후기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서 이달 6월 초 여수 엑스포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순천만을 돌아보았다.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열리게 될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았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출근하여 박람회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일찍이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에 지정이 되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여 2010년에는 300만명 이상이 다녀갔으며 해마다 그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총 면적 152만7000㎡(약 46만2000평)에 꾸며질 박람회장은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등 세계 10여 개국이 참여하여 각 국가별로 특색 있는 정원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는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이 이곳을 방문하여 네덜란드 정원이 꾸며지고 있는 현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로서 최고 명품 정원을 만들어 천혜의 자연정원인 순천만과 연계한 세계 유일의 에코 그린 도시를 조성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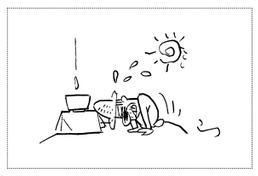
조경 전문가로부터 기증을 받은 600년산 팽나무도 어느새 무성한 잎을 자랑하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꽃의 정원, 물의 정원, 숲의 정원 등 다양한 정원들은 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유명 가든 디자이너들이 직접 꾸민 자연친화적인 순천만 정원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어떤 이야기를 들려 줄 것인가? 내년 4월 20일이 기다려진다.

〈영광 해룡고 교사〉

無等鼓

기우제



전남 서남해안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 예년 같으면 이미 장마가 시작돼 "언제 이 비가 그치나"라는 푸념이 나올 법도 하지만 올해는 농촌이건, 도시에서건 시원한 빗줄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장마 피해도 무섭지만 목타는 대지를 충분하게 적셔줄 단비가 우선이라는 한목소리다.

과거 가뭄이 들면 돼지머리로 상 차리고 제관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기우제'를 올렸다. 올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밭에는 흙먼지만 날리고 모내기한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가 되자 급기야 기우제 소식도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 기우제는 색다르다. IT 강대국답게 '트위터 기우제'가 출현한 것이다.

연일 타는 듯한 가뭄이 지속돼 농경지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 단비를 염원하는 '기우제 멘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 트위터리안이 자신의 트위터에 타는 가뭄에 마음이 논처럼 쩍쩍 갈라졌을 농민들을 위해 트위터기우제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모아 해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염원을 보내자"라는 글을 올렸다.

이 멘션은 25일까지 1000회 넘게 리트윗됐다. 트위터 기우제에는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들도 동참했다. 모두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빨리 흡족한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

초여름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기상학적으로 장마전선이 제 때에 북상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번 가뭄 역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의 한 유형이다. 기상이변은 자연적인 현상에다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상청은 7월 초가 지나야 해갈될 것이라는 예보다. 이번 가뭄은 자연에 상처를 줘 고통을 자초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해보는 반성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학교급식 지역단위 공동 표준식단제 운영해야

학교급식은 그 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농산물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은 온 국민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다. 하지만 때때로 값싼 외국산 재료를 쓰다가 학교 내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우리 농산물인데도 보관 잘못이나 유통상에 문제 때문에 식중독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식품류의 안전사고를 막고 우리 농산물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와 학교 간에 직거래 공급시스템이 하루속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서 선진국처럼 지역단위로 공동식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표준식단제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현재 개별 학교단위로 식재료를 선정하고 구입계약을 체결해 학교급식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공동 표준식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은 식자재 유통업체가 약간 영세하고 거기다가 다단계 유통형태가 돼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적잖게 높다. 그러니 만큼 지역단위의 학교와 농민 생산자단체가 직접 연계하는 공급망 방식이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공동구매를 할 경우 대량구매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 측인 학교는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므로 유통마진을 줄여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생산자인 농민과 구매자인 학교가 서로 장점을 나눠갖는다는 얘기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공동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구매로 이어져 급식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 학교급식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식재료이다. 그러므로 이윤추구보다는 공익성을 갖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거기서 통합 담당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것 같다.

▲최인준·광주시 북구 운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